

한걸음 더 움직이는 마을

‘움직이는 마을’에는 피해자가 갈 수 있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버스정류장처럼 마을 곳곳에 퍼져있다. 서로 통해있는 마을길과 길목에 있는 지원기관들은 가정폭력이 자리잡을 틈을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폭력이 방지되지 않고, 가정폭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원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중앙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이 싹틔줄처럼 움직인다고 해도 중앙의 네트워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을길은 막히기 쉽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집중, 부처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움직이는 마을,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필수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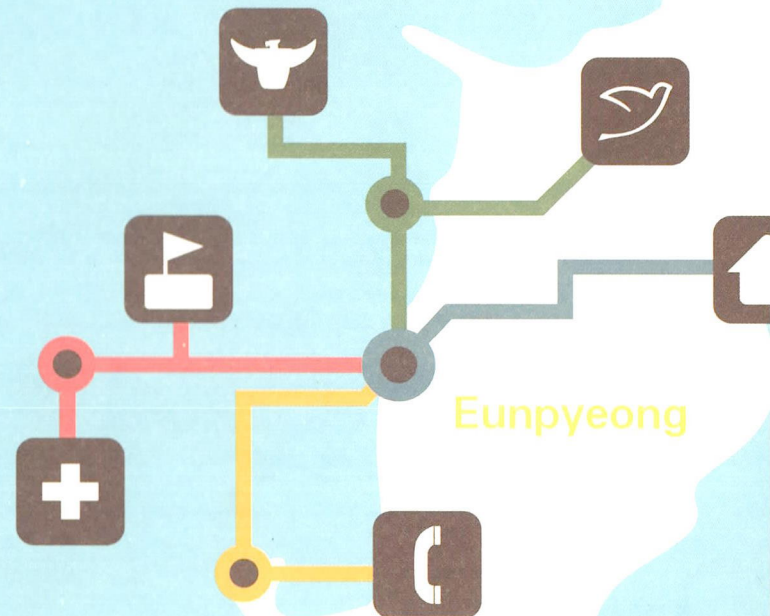


S Start 시작 : 가정폭력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는 곳

- | | | | | | |
|---------|------|----|-------|------|--------|
| | | | | | |
| 학교 | 지구대 | 병원 | 마을사람들 | 상담실 | 동사무소 |
| | | | | | |
| 지역사회복지관 | 깃털쉼터 | 약국 | 미용실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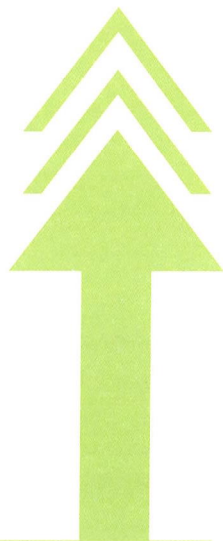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모델 in 은평



폭력감수성 UP!

폭력이 잘 보이는 마을이
폭력 없는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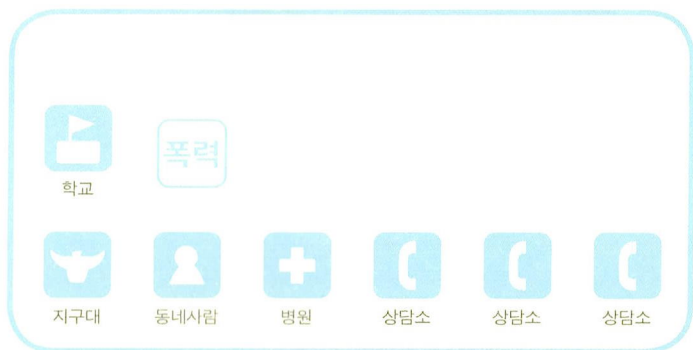


단계에 들어가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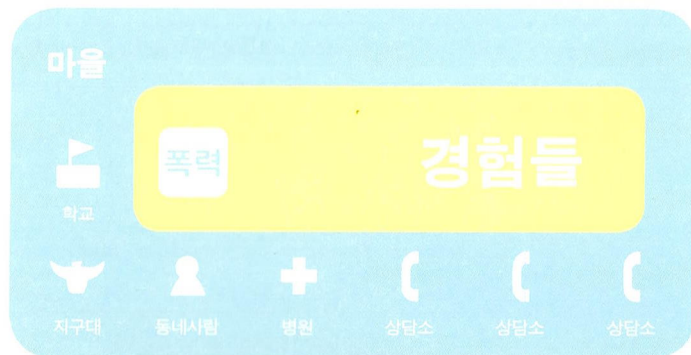
가정폭력을 쉬쉬하고 말하지 못하는 마을에서 폭력은 마치 사라진 듯 보이지만,
침묵과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폭력은 마을 깊숙이 뿌리내린다.
폭력이 잘 보이는 마을은 폭력이 많은 마을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말하기와 관심의 토양을 가진 마을, 폭력감수성이 높은 마을이다.

1단계 | 움직이지 않는 마을



마을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물론 아무도 가정폭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는 단계. 가정폭력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서 형태를 달리하는 많은 폭력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2단계 |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을



마을이 살아나는 단계. <폭력감수성>이라는 색을 입은 마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고, 마을에서는 다양한 피해경험들 속에서 폭력인지, 싸움인지, 혼육인지를 두고 갑론을박 한다. 이런 논쟁 속에서 마을의 폭력감수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피해경험을 대상화하며 폭력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3단계 | 움직이는 마을



마을의 폭력감수성이 피해경험과 만나 다양한 가정폭력 경험이 자유롭게 회자되는 단계. 노란색의 피해경험들이 마을과 소통하고, 파란색을 입은 마을의 폭력감수성은 이 경험들과 융화된다. 마을의 다양한 기관들이 폭력감수성을 확장하며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한다. 가정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게 폭력을 조기에 발견한다. 높아진 폭력감수성은 사소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마을분위기를 만들고 피해 경험을 존중한다.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학교폭력, 성폭력도 함께 줄어든다.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모델 in 은평

갯벌쉼터

움직이는 마을모델 in 은평에서 처음 제시한 모델. 피해자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마을 쉼터. 갯벌쉼터에 1~2일 머물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이 보호하는 쉼터, 마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하는 쉼터다. 아직 정책화되지 않았고 은평구에서 처음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볼 수 있겠다.

이웃,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움직이는 피해자 워크숍에서 피해자들은 이웃, 교회, 성당 등 주변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폭력관계를 벗어나는 일이 많았다.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응원은 피해자들이 폭력관계를 빨리 벗어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비어있는 공간들

마을에서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체계들이 촘촘히 들어와야 한다. 이 화살표들을 채우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폭력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미용실, 약국, 한의원 등이 마을네트워크로 움직일 수 있다.

약

방사형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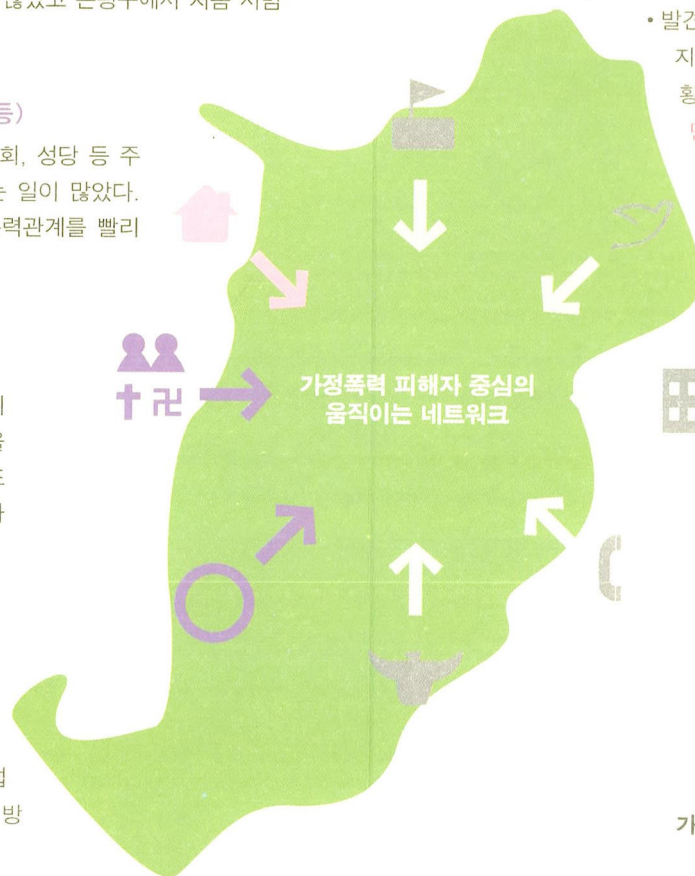
움직이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는 많아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진다. 각 기관들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방사형 네트워크 할 수 있다.

기관별 가정폭력 지원매뉴얼 제작

지구대, 학교, 동사무소, 상담실, 복지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매뉴얼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한다.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움직이는 네트워크

움직이는 마을의 기관들은 피해자 지원기능과 가정폭력 예방기능, 네트워크 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마을의 폭력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을 함께한다.



기관별 역할

학교 예방과 발견, 지원기능

- 예방하기 : 가정폭력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 정기적인 학부모 통신발송과 교사/학부모/학생 대상 정기적인 폭력 예방 워크숍
- 발견하기 : 교육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교사의 유기적인 소통
- 선행과제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모든 학교 배치와 고용 안정

동사무소 예방과 발견, 지원과 사후관리

- 발견하기와 사후관리 : 지역주민의 가정폭력감수성 훈련, 지역내 가정폭력 스크리닝, 상담과정에서의 가정폭력 상황 점검, 가정폭력 지원 가구 사후 관리.

단, 통합관리에 포함할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정보보호 등 신변보호 조치 필요.

- 선행과제 : 인원확충, 보건복지부 통합관리매뉴얼에 가정폭력 내용 포함.

지역사회복지관 예방과 발견, 지원기능

- 발견하기 : 주민대상 가정폭력감수성 훈련, 대상자 상담시 가정폭력 상황 점검
- 지원기능 :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역자원 연계 및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방과 발견, 지원기능

- 예방하기 : 청소년 대상 폭력감수성 교육 진행
- 발견하기 : 내담 청소년의 가정폭력 환경 탐색, 어머니 등 다른 피해 상황 탐색
- 지원하기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전문 상담, 지역자원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 지역내 가정폭력 감수성 확산의 의무
 - 움직이는 네트워크 허브 기능 수행
 - 피해 발생시 사건지원

피해자 지원기능	예방기능	네트워크 기능
가해자 격리	피해자 비난하지 않기	방사형 네트워크
생계비지원	복지체계에 통합관리	연계하는 기능
상담지원 및 쉼터연계	폭력감수성 높이기	연계받는 기능
비공개전화지원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	상호 비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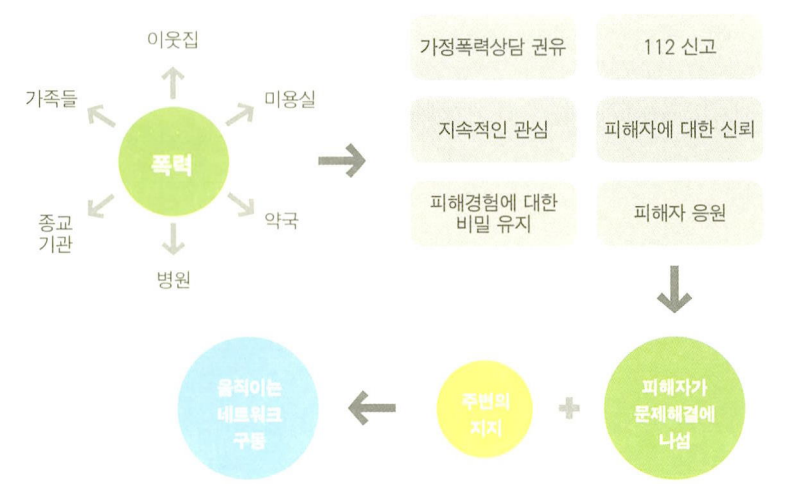


지구대-경찰서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 예방하기 : 관할 경찰서의 가정폭력 대응 컨설팅
- 피해자보호 : 출동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후 피해자 대면과 권리 고지
- 가해자 처벌 : 긴급임시조치 등 가해자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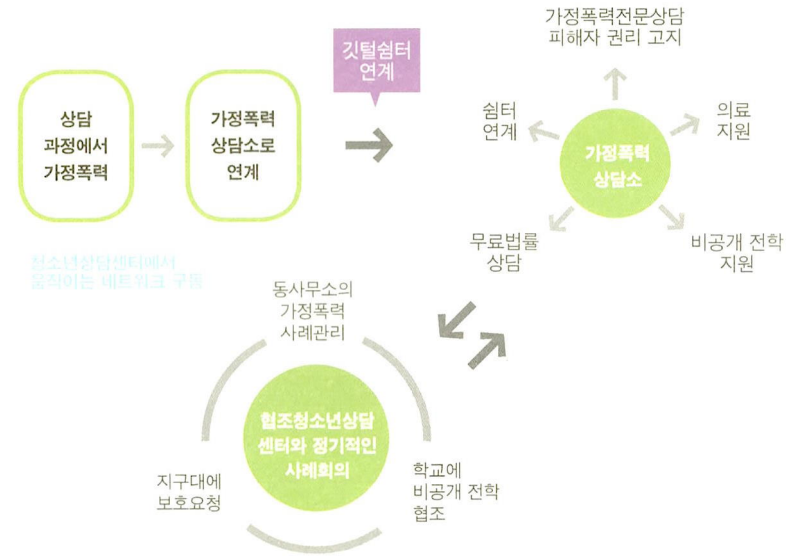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움직이는 네트워크

이웃, 학교, 지구대, 청소년상담센터 등 가정폭력을 먼저 발견하는 곳에서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시작될 수 있다. 마을의 폭력감수성이 높아질수록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더 편안하게 피해를 말할 수 있다.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환경에서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문제해결을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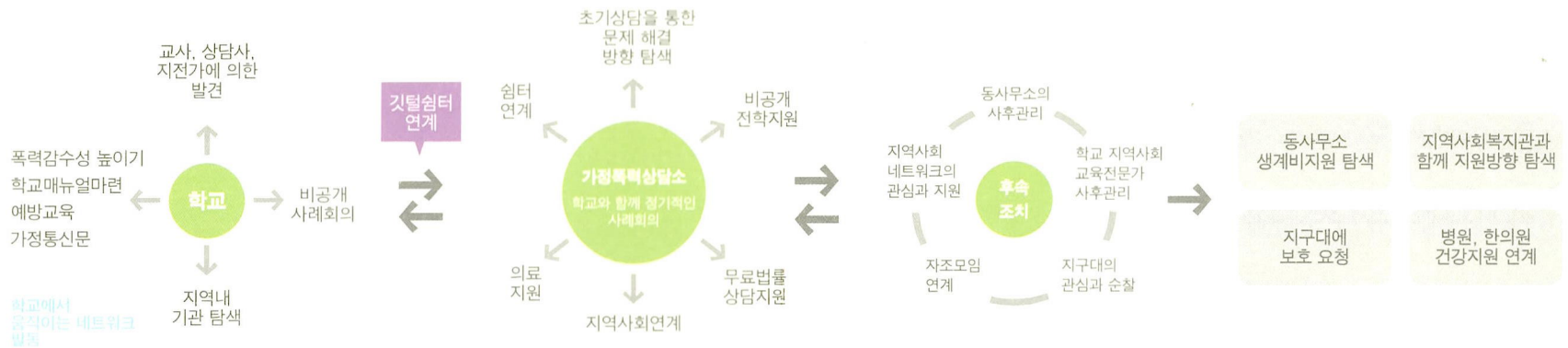
움직이는 네트워크의 활동 예시

청소년 상담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발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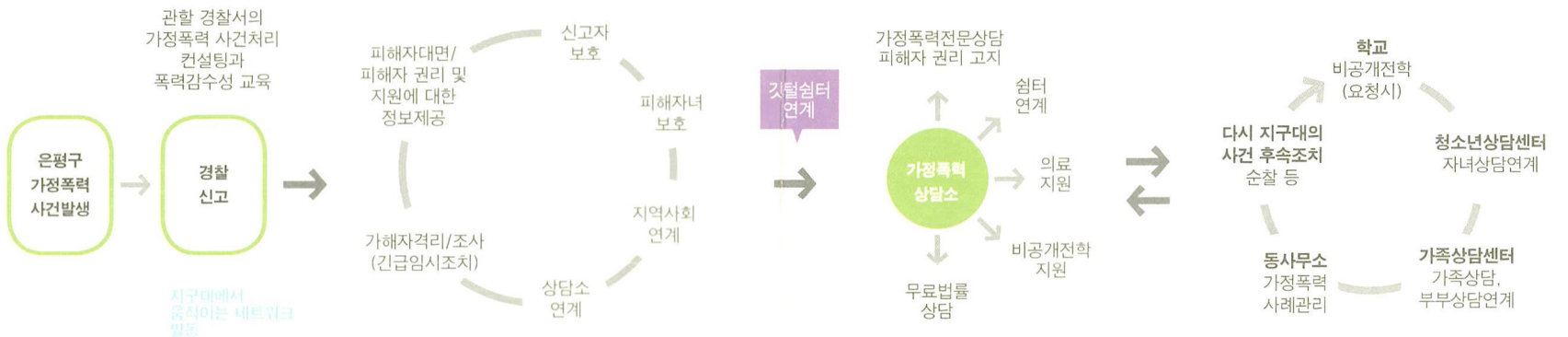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움직이는 네트워크 구동

학교에서 발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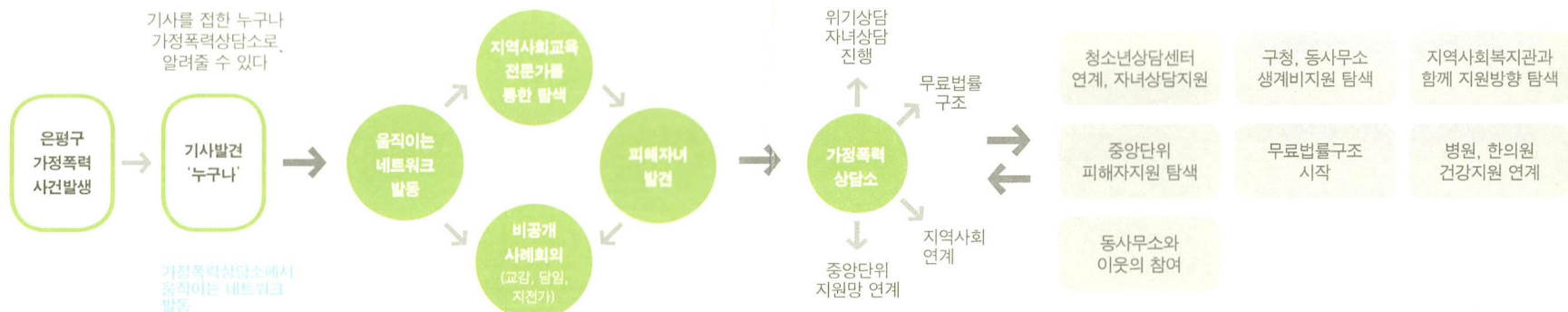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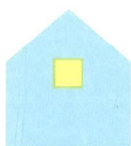
지구대에 도움요청 해온 경우



신문에서 접한 가정폭력 피해지원사례

주민 누구나 가정폭력 보도기사를 접하면 누구나라도 먼저 마을 가정폭력상담소로 알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발동한다. 아래 그림은 실제 한국여성신문사가 실행한 은평구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사건 지원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모델
in 은평네트워크

2012년 끝나지 않는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은평구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고,
모든 폭력의 뿌리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은평구에서 가정폭력 예방, 조기발견, 피해자 지원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Korea Women's Hot Line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홈페이지 www.hotline.or.kr

전화상담 02-2263-6464~5

이메일 상담 counsel@hotline.or.kr